



코로나19 뉴스의 국내외 위기대응 책임 프레임이 타국민에 대한 처벌 정책 지지에 미치는 영향

집단 나르시시즘의 매개효과 중심

임인재 성균관대학교 글로벌융복합콘텐츠연구소 선임연구원

심민선 인하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이철주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The Effects of Responsibility Frames for Domestic and Foreign Countries in COVID-19 News on Support for Punitive Policies toward Foreigners

The Mediating Role of Collective Narcissism*

In-jae Lim (ORCID: <https://orcid.org/0000-0003-0705-1209>)**

(Senior Researcher, Global Convergence Contents Research Center, Sungkyunkwan University)

Minsun Shim (ORCID: <https://orcid.org/0000-0003-4248-7120>)***

(Professor, Department of Media and Communication, Inha University)

Chul-joo Lee (ORCID: <https://orcid.org/0000-0001-9243-8576>)****

(Professor, Department of Communi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Despite the important role of news media in assisting people in coping with the COVID-19 pandemic at both national and global levels, the observed trends of news coverage are not always appropriate for serving the role. In the early phase of COVID-19, news coverage in Korea often criticized the way in which foreign countries responded to COVID-19, compared with how well our own country handled pandemic response. For example, it was often reported in a negative light that European and North American countries were reluctant to adopt collective response strategies or strict measures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2021S1A5C2A02088387) and the Institute of Communication Research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Research Grant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NRF-2021S1A5C2A02088387)과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 mimohhh@naver.com, first author

*** mshim@inha.ac.kr, corresponding author

**** chales96@snu.ac.kr

(e.g., mask wearing, social distancing, and tracking of confirmed patients' trajectories), as opposed to Korea and Asian countries, to reduce the spread of the virus. These news trends of criticizing foreign countries might be effective in enhancing national esteem for a short period; however, such news may have undesirable effects causing conflicts among domestic and foreign people and eventually interfering with global collaboration to implement regulations or policies in combating the pandemic. In view of thi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how news reports on COVID-19 responses in domestic and foreign countries influence people's attitude and support for governmental punitive policies toward foreigners. In particular, this study examined the role of responsibility frames (people versus government) in news that praise Korea's successful response to COVID-19 while criticizing foreign countries' response. Specifically, we examined the effects of 2 responsibility frames praising Korea's response (people versus government) and 2 responsibility frames criticizing foreign countries' response (people versus government) on collective narcissism and support for punitive policies toward foreigners in Korea. The mediating role of collective narcissism in the effects of news on punitive policy support was also examined. We conducted an online experiment, using a 2×2 factorial design. Study participants (N=400) were randomly assigned to one of the four conditions: Korean people × foreign people, Korean people × foreign government, Korean government × foreign people, and Korean government × foreign government responsibility frame conditions. The results showed that neither the responsibility frames on Korea's response nor the responsibility frames on foreign countries' response had significant main effects on collective narcissism and punitive policy support. However, their interaction effect on collective narcissism was significant. Specifically, among those who read news with the foreign people responsibility frame, the Korean government responsibility frame increased collective narcissism significantly more than the Korean people responsibility frame. With respect to the mediating role of collective narcissism, the effect of the Korean government (as opposed to people) responsibility frame on increasing support for punitive policy was significantly mediated via collective narcissism in the condition of the foreign people responsibility frame; by contrast, such mediation effect was not significant in the condition of the foreign government responsibility frame. Theoretical and social implications based on the results are discussed, and future research is also suggested.

Keywords: COVID-19 Response Coverage, Responsibility Frame, Collective Narcissism, Punitive Policy Support

1. 서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 이하 코로나19)이 팬데믹으로 진행되면서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한 국제협력 및 공동대응의 중요성이 커졌다(Nkengasong, 2021). 그러나 실상 코로나19 방역 정책은 개별 국가 단위에서 각국의 정부 주도로 시행되어 온 경향이 크며(Devlin & Connaughton, 2020), 국가 단위의 대응이 국제협력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예, 국경봉쇄)도 있다. 또한, 정치, 경제, 문화 차이에 따라 국가별 대응 방식에도 차이가 있다. 예컨대, 아시아 국가에서는 코로나19 초기 국민들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확진자 동선추적 등을 철저히 시행한 반면, 서유럽 및 북아메리카 국가에서는 이러한 집단적 대응을 상대적으로 느슨하게 했다(고대훈, 2020; Van Bavel et al., 2020). 이러한 국가별 대응 차이는 개인의 자유를 우선시하는 서구의 개인주의 문화와 집단의 규범을 중요시하는 아시아의 집단주의 문화 차이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Kraus & Kitayama, 2019). 코로나19와 같은 긴급한 위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집단주의 문화권은 공동체를 위해 개인의 희생을 바탕으로 하는 강력한 방역 정책을 시행한 반면에, 개인주의 문화권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정부 주도의 집단 대응 전략을 채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Van Bavel et al., 2020).

코로나19 대응이 국가별로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본 연구는 자국과 타국의 코로나19 대응을 비교한 뉴스 보도가 사람들의 태도 및 정책 지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실제로 국내 언론들은 국가별로 코로나19 대응이 다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중점적으로 보도해왔다. 예컨대 코로나19 발생 초기 언론들은 한국 정부 주도의 방역 정책을 'K 방역'이라 지칭하며 '한국은 방역 모범국'이라는 논조로 긍정적으로 보도한(여선하·차희원, 2021) 반면, 타국기에 대해서는 '방역을 소홀히 하는 나라'로 비하하는 부정적인 보도를 하였다(고대훈, 2020). 국가 위기 상황에서 구성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방역 지침 준수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뉴스 보도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Van Bavel et al., 2020). 더욱이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사람들이 집단적인 방역 지침 준수에 지쳐가고 있을 때 내집단을 격려하는 뉴스 보도는 집단 성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향후 코로나19 대응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양준용·손애리·조병희, 2021; 여선하·차희원, 2021).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보도 양태는 자국민 중심주의 혹은 외국인 배타주의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코로나19 관련 국제협력과 공동대응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Martikainen & Sakki, 2021). 본 연구는 이러한 보도 경향을 반영해 코로나19 기사에 '코로나19 대응을 한국이 잘했다'는 자국 고양 내용과 '타국은 대응을 잘하지 못했다'는 타국 비판 내용이 포함되었을 때, 일반인의 태도와 정책

지지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탐구하고자 한다. 특히 이러한 보도가 자신이 속한 집단의 우수함을 비현실적으로 높게 평가하는 태도로, 맹목적인 애국주의(blind patriotism)와 유사한 개념이며 외집단에 대한 배타성과 폭력성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집단 나르시시즘(collective narcissism)(Golec de Zavala, Cichocka, Eidelson, & Jayawickreme, 2009; Golec de Zavala & Lantos, 2020)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탐구할 것이다.

한편, 커다란 위기가 발생했을 때 국민들은 정부의 대응 메시지를 평가하며, 위기대응 책임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메시지 평가 및 대응 관련 수용의도를 다르게 형성한다(박경희, 2013; 최호철·권용수·김미선, 2019). 또한 위기에 대해 ‘해당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가’ 등 언론 보도에 따라 그 위기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이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홍주현·차희원, 2018).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하면 언론이 ‘코로나19 위기대응 책임의 주체를 어떻게 프레임하는가’에 따라 코로나19에 대한 인식과 코로나19 관련 정책 지지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여선하·차희원, 2021; 최종혁·소지연, 2021). 실증적인 연구들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 및 전파에 대한 책임 프레임은 수용자의 인지 및 감정 반응을 매개로 처벌 및 도움 정책 지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최종혁·소지연, 2021; Lim, Shim, Lee, Jeong, & Lee, 2022).

이러한 논의들을 종합해,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대응 관련 뉴스가 집단 나르시시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와 함께 이 뉴스가 타국민에 대한 처벌 정책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탐구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대응 관련해 국내 언론들이 자국은 고양하고 타국은 비판하는 경향으로 보도를 하고 있다는 점, 위기대응 책임 주체에 대한 서술에 따라 일반인의 인식과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토대로, 자국의 위기대응 책임 프레임 2(한국 국민의 바람직한 대응 vs. 한국 정부의 바람직한 대응) 및 타국의 위기대응 책임 프레임 2(타국 국민의 잘못된 대응 vs. 타국 정부의 잘못된 대응)로 구분해 이 기사들이 집단 나르시시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함께 이러한 코로나19 뉴스가 처벌 정책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집단 나르시시즘이 매개효과를 보이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코로나19 발발 초기, 한국은 방역 지침 미준수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하는 정책을 실시했으며,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는 시기(2021년 상반기 이후)에는 코로나19 해외 유입을 우려해 타국 및 외국인에 대해 배타적이고 처벌적인 정책을 진행하였다(최종혁·소지연, 2021). 이러한 점을 토대로 본 연구는 코로나19 대응 기사 유형에 따라 타국민에 대한 처벌 정책 지지가 달라지는지 검증하고 언론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미디어의 메시지 유형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Nan, Iles, Yang, & Ma, 2022). 현재 코로나19 보도는 예방 행동, 백신 접종 등과 같은 건강 분야 뿐 아니라 집단에 대한 편견, 낙인, 갈등 등 정치·사회 분야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Roberto, Johnson, & Rauhaus, 2020). 이처럼 코로나19는 근본적으로 공공건강 이슈이지만 정부의 방역 정책 수립과 사회구성원들의 공동대응 측면에서는 정치·사회 이슈라고도 할 수 있다(Gollust, Fowler, & Nagler, 2021; Hart, Chinn, & Soroka, 2020). 본 연구는 한 사회 내의 외집단에 대한 뉴스 보도가 코로나19 정책 지지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선행 연구들(예, 최중혁·소지연, 2021)의 연구범위를 확대하여,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자국 및 타국 관련 보도가 타국민에 대한 배타적인 차별 정책에 지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는 데 의의가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집단 나르시시즘(Golec de Zavala & Lantos, 2020)의 개념을 도입해 코로나19 뉴스 기사와 집단 나르시시즘의 관계를 규명하는 의미가 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언론 보도는 사회구성원 간 갈등을 야기시키는 요인이 되었으며 사회 소수집단에 대한 혐오, 차별을 유발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표시영·정지영, 2021; Hart et al., 2020). 이에 본 연구는 코로나19에 대한 공동대응을 촉진하고 타국 비하 및 외집단 혐오에 빠지지 않는 코로나19 대응 뉴스 유형이 무엇인지 도출하는 데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이론적 논의

1) 코로나19 뉴스의 영향력과 프레임

뉴스 프레임은 특정 사건의 내용을 선택, 강조, 배제함으로써 수용자의 인식 및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Iyengar, 1991). 이것은 뉴스 프레임링 효과(framing effect)라고 명명할 수 있다(Gamson & Modigliani, 1989). 따라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미디어 프레임에 구성하는 것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한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Nan et al., 2022). 코로나19 관련해 커뮤니케이션 분야 선행 연구들 또한 코로나19 메시지 및 기사 프레임에 따라 사람들의 반응과 태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Nan & Thompson, 2020, 2021). 예컨대, 코로나19 메시지와 사람들의 태도 및 행동 의도를 검증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마스크 쓰기,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백신 접종과 같은 코로나19 예방 행동 내용을 포함하는 메시지는 자기 효능감에 영향을 주며 행동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Chong et al., 2020). 코로나19 백신접종 관련해 이익 프레임이 아닌 손실 프레임으로 제시하는 경우 백신 접종 의도가 더 증가하는 것으로 제시되었으며(Borah, Hwang, & Hsu, 2021), 코로나19 관련 오정보 또한 코로나19 관련 행동 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Hornik et al., 2021).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이 발발했을 때 뉴스 프레임은 코로나19 감염자뿐만 아니라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 배제, 차별을 유발시킬 수 있다(표시영·정지영, 2021). 한 연구(Dhanani & Franz, 2021)에서 ‘코로나19 발발의 원인은 중국이다’는 중국 원인 프레임은 미국에 거주하는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와 혐오증을 증가시켰으며,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인 타격 정도가 심각하다’는 경제 프레임은 ‘코로나19로 인해 건강 문제가 심각하다’는 건강 프레임보다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위협 및 혐오를 더 많이 유발하였다. 또한 코로나19 관련한 구체적인 이름(예, 중국 바이러스, 우한 폐렴 등)이 기사 속에 포함돼 있으면 해당 국가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Feng & Cheng, 2020).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관련해 외국인 위협 프레임으로 기사가 제시되면,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차별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사람들에 대한 인종 차별주의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제시되었다(Devakumar, Shannon, Bhopal, & Abubakar, 2020).

그리고 코로나19 원인 및 책임 프레임에 따라 정책 지지도 달라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뉴스 프레이밍 효과와 귀인이론(attribution theory)을 바탕으로 하면, 특정 사건의 원인과 책임에 대한 프레임에 따라 수용자의 책임귀인 인식, 감정 반응은 달라지며 이에 따라 처벌 및 도움 정책 지지도 달라질 수 있다(Iyengar, 1991; Kim, 2015; Kühne, Weber, & Sommer, 2015; Weiner, 2006). 귀인이론 측면에서 특정 사건에 대한 원인 귀인은 결국 ‘그 사건을 해결해야 하는 책임의 주체가 누구인가’에 대한 인식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Niederdeppe, Shapiro, & Porticella, 2011), 이에 따라 특정 사건의 책임 주체에 대한 프레임은 사람들의 인지 및 감정, 관련 정책 지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김수진·차희원, 2016). 특히 어떠한 사건의 책임을 특정 개인이나 특정 집단에 귀인하면 그 개인 혹은 집단을 처벌하는 정책에 대한 지지가 높아질 수 있다(Weiner, 2006). 이러한 논의를 실증적으로 검증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비판에 대한 대응 주체 프레임(개인 vs. 사회)에 따라 인지 및 감정 반응은 달라졌으며 이에 따라 정책 지지도 달라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김수진·차희원, 2016). 코로나19와 관련해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책임을 다르게 프레임(개인 주체 vs. 사회 구조적인 요인 주체)해 제시하면 이에 따라 책임귀인과 감정 반응이 달라졌으며 결국 처벌 및 도움 정책 지지도 달라졌다(Lim et al., 2022). 코로나19 감염 원인의 주체를 주체적 프레임 대신 특정 개인으로 프레임하면 책임귀인, 분노를 매개로 처벌 정책 지지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종혁·소지현, 2021). 그리고 코로나19 대응 관련 프레임(예, K방역에 대한 긍정 프레임)은 국민적 자존감을 매개로 정책 지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여선하·차희원, 2021). 이러한 연구들의 결과를 종합하면, 위기대응 주체에 대한 프레임에 따라 일반인의 반응이 달라지며 이에 따라 정책 지지 역시 달라짐을 알 수 있다. 즉, 뉴스에서 ‘코로나19 대응의 책임 주체가 누구라고 프레임하는가’는

코로나19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과 대응에 있어 중요한 문제인 것이다. 위기대응과 관련 주제와의 관계를 탐구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사회적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정부의 관리역량뿐만 아니라 시민의 자율역량(재난관심도, 예방 교육 참여 의지 등)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은 재난 관리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최호철 외, 2019). 커다란 위기가 발생했을 때 국민들은 정부의 위기대응 메시지를 평가하는데, 이 메시지 속 대응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메시지 평가와 대응 관련 수용 의도를 다르게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경희, 2013; 홍주현·차희원, 2018).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하면, 코로나19 대응 주체를 정부로 기술하는지, 국민으로 기술하는지에 따라 일반인의 인식 및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

선행 연구들의 논의를 종합하면, 코로나19 뉴스 프레임에 따라 일반인의 인식과 정책 지지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코로나19 위기대응 주체에 대한 책임 프레임에 따라서도 인식과 정책 지지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한편, 국내 언론들은 코로나19 대응 관련해 한국은 대응을 잘했다(자국 고양)고 보도하는 반면, 서구는 대응을 잘하지 못했다(타국 비판)고 보도를 해왔다(고대훈, 2020).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본 연구는 코로나19 국내외 대응 차이에 관한 뉴스에서 책임 주체를 각각 국민 대 정부로 프레임할 경우 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볼 것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자국의 위기대응 책임 프레임 2(자국 고양 국민 vs. 자국 고양 정부), 타국의 위기대응 책임 프레임 2(타국 비판 국민 vs. 타국 비판 정부)로 설계해 그 효과를 검증할 것이다.

2) 집단 나르시시즘의 정의와 영향력

전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 직면했을 때, 많은 국가들이 결속력을 다지고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애국주의(patriotism), 자민족 중심주의(ethnocentrism)에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코로나19와 같은 전 세계적인 재난이 발발했을 때, 애국주의, 자민족 중심주의 등에 호소해 외집단에 대한 차별, 배척, 혐오를 일으키는 것보다 세계 국가들이 협력해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선행 연구들은 강조하고 있다(Van Bavel et al., 2020). 이에 본 연구는 코로나19 뉴스에서 우리 집단의 자부심을 고양하는 내용과 다른 집단을 비판하는 내용이 제시될 경우, 부정적 애국주의의 한 유형인 집단 나르시시즘(collective narcissism)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집단 나르시시즘은 개인 단위의 나르시시즘이 집단적으로 발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Bizman & Yinon, 2004). 개인 단위의 나르시시즘은 다른 사람에 비해 자신이 지나치게 뛰어나다고 지각하는 것이며 다른 사람의 비판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이다. 나르시시즘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비현실적인 위대함을 지속적으로 인정받고 싶어하기 때문에, 그 자신의 이미지에 대한 위협에 직면했을 때 상대방을 용서하지 못하게 된다(Baumeister,

Bushman, & Campbell, 2000). 개인 차원의 나르시시스트들은 불안정한 개인 차원의 자기 효능감(personal self-esteem)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자아에 대한 위협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갑작스러운 추락에 취약하다. 때문에 개인 수준의 나르시시즘은 결과적으로 상대에 대한 적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Bushman & Baumeister, 1998). 그래서 개인적 나르시시즘은 대인 관계에서 개인적인 공격성과 상대방에게 복수하는 것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Golec de Zavala et al., 2009).

이러한 나르시시즘 경향은 다양한 집단뿐만 아니라 민족, 국가 차원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Golec de Zavala, Cichocka, & Bilewicz, 2013). 집단 나르시시즘은 그 자신이 속한 집단의 우수성에 대해 인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 나르시시즘과 집단 나르시시즘은 유사한 개념이기는 하지만, 집단 나르시시즘은 상대 집단에 대한 태도와 행동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며 개인적 나르시시즘은 개인 간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Jordan, Spencer, & Zanna, 2005). 집단 나르시시즘은 내집단의 우수함 혹은 위대함에 대한 비현실적 신념 및 감정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집단 나르시시즘은 사회 정체성 이론(social identity theory)에서 제시하는 내집단 편애(in-group love)와 외집단 적대(out-group hate)와 관련이 높다고 할 수 있으며 건설적인 애국심과 반대되는 맹목적 애국심(blind patriotism), 자민족 중심주의와 유사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Golec de Zavala & Lantos, 2020).

그리고 집단 나르시시즘은 내집단 만족감(in-group satisfaction)과 유사한 개념일 수 있는데, 내집단 만족감은 내집단이 우수하다는 신념이라는 측면에서는 집단 나르시시즘과 비슷하다. 하지만 내집단 만족감은 외집단에 대해서도 내집단과 유사하게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점에서 집단 나르시시즘과는 조금 다르다(Golec de Zavala et al., 2009). 집단 나르시시즘은 내집단 만족감의 하위 요인인 내집단 긍정성(in-group positivity)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으며, 내집단의 방어적인 긍정성(defensive in-group positivity)과 관련성이 높다(Cichocka, 2016). 이러한 집단 나르시시즘의 경향성은 외집단 혹은 다른 나라에 대한 적대감, 외집단에 대한 불관용, 공격적인 행동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다(Golec de Zavala & Cichocka, 2012).

위협받는 자부심 이론(threatened egotism theory)에 따르면, 개인 차원의 나르시시즘은 공격성, 적대감, 용서하지 못함, 복수 등과 관련이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Baumeister et al., 2000; Exline, Baumeister, Bushman, Campbell, & Finkel, 2004). 선행 연구들을 토대로 하면, 개인 차원 나르시시즘은 도발, 불공평함, 비판, 모욕 등에 대한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반응의 요인이 된다. 이를 확장한 집단 나르시시즘은 외집단에 대한 불관용, 공격적인 행동,

군사적인 공격 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Golec de Zavala et al., 2009). 선행 연구들의 내용을 종합하면, 집단 나르시시즘을 강하게 지니고 있는 집단은 내집단에 대한 위대한 이미지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미지를 유지하고 보호하려고 하며, 내집단의 경멸, 비판, 불승인의 징후로서 다른 집단을 해석하며 이를 바탕으로 외집단에 대한 공격을 하게 된다(Golec de Zavala et al., 2009).

집단 나르시시즘의 개념을 적용해 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한 연구들은 집단 나르시시즘과 선거 관련 투표 행위(Federico & Golec de Zavala, 2018), 정당 지지 의도(Marchlewska, Cichocka, Panayiotou, Castellanos, & Batayneh, 2018), 외집단에 대한 공격의도(Golec de Zavala & Cichocka, 2012)와의 관계를 탐구했다. 구체적으로 집단 나르시시즘은 반유대주의(Anti-Semitism)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Golec de Zavala & Cichocka, 2012). 국가 단위의 집단 나르시시즘은 포퓰리즘 관련 법안과 특정 정당을 지지하게 만들었으며(Marchlewska et al., 2018), 국가 정체성 차원에서 내집단을 위협하는 이미지에 대해 집단 나르시시즘은 외집단을 공격하는 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Golec de Zavala, Cichocka, & Iskra-Golec, 2013). 그리고 미국 대통령 선거 때 내집단의 위대함을 강조하는 집단 나르시시즘은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Federico & de Zavala, 2018). 한편, 코로나19와 K-방역에 대한 국가적인 자부심(일명 방역 자부심)과의 관계를 탐구한 양준용 등(2021)의 연구에 따르면, 방역 자부심 수준에 따라 코로나19에 대한 행동 의도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준용 등은 지나치게 높은 방역 자부심은 다른 국가보다 우리나라가 더 우위에 있기를 바라는 내셔널리즘(nationalism)과 유사할 수 있으며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자만심은 행동 의도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집단 나르시시즘은 내집단의 우월성, 외집단에 대한 비하에서 비롯되는 인식이며 국가 단위의 집단 나르시시즘은 향후 외집단에 대한 적대적인, 공격적인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에서 국가 단위의 민족주의, 자민족 중심주의는 코로나19 관련한 세계적인 공동대응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Van Bavel et al., 2020). 집단 나르시시즘의 개념은 맹목적 애국주의, 자민족 중심주의와 유사한 개념이며 향후 외집단 공격 및 처벌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여러 선행 연구들에서 검증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가 단위 자부심의 부정적인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 집단 나르시시즘 변수를 코로나19 뉴스의 영향력에 적용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선행 연구들은 한국 방역 시스템을 고양하는 기사들은 국가 단위의 자긍심 및 자부심을 높일 수 있다고 제시해왔다(양준용 외, 2021; 여선하·차희원, 2021). 이러한 연구들의 결과를 확장해 본 연구는 코로나19 대응 관련해 내집단의 우월성을 강

조하는 자국 고양 내용과 외집단의 열등함을 강조하는 타국 비판 내용이 포함된 뉴스 기사가 집단 나르시시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탐구하고자 한다.

그리고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위기가 발생했을 때 위기대응의 책임 주체를 누구로 제시하는가에 따라 관련 메시지에 대한 평가, 재난 대응 정책 수용 의도가 달라질 수 있다(박경희, 2013; 최호철 외, 2018). 실제로 코로나19가 발발했을 때 범학계 대책위원회에서는 대정부 메시지와 대국민 메시지를 구분하는 등 대응 책임 주체를 다르게 하여 방역 전략과 대응 전략을 구축하였다(대한감염학회, 2022). 그리고 코로나19 대응 관련해 각 주체에 대한 평가가 진행되었는데, 국민보다는 정부가 잘했다는 평가가 있는(한국언론진흥재단, 2020) 반면, 코로나19에 대해 한국 국민은 희생을 했지만 정부의 대응은 미흡하다고 평가되기도 했다(장현은, 2022). 기존 연구들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코로나19 대응 관련해 자국 대응과 타국 대응에 대한 인식이 다를 뿐만 아니라 국민과 정부 등 각 주체별 대응에 대한 평가도 다를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코로나19에 대한 국내외 대응 기사(자국 고양 및 타국 비판)에서 위기대응 책임 주체(국민 vs. 정부)를 다르게 프레임해 제시하는 경우 집단 나르시시즘 인식도 상대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코로나19 기사 내 자국의 위기대응 책임 프레임(자국 고양 국민 vs. 자국 고양 정부)에 따라 집단 나르시시즘이 달라지는가?

연구문제 2. 코로나19 기사 내 타국의 위기대응 책임 프레임(타국 비판 국민 vs. 타국 비판 정부)에 따라 집단 나르시시즘이 달라지는가?

본 연구에서 중점을 두는 것은 뉴스의 자국 고양 내용과 타국 비판 내용의 병합, 특히 자국의 위기대응 책임 주체와 타국의 위기대응 책임 주체가 함께 제시되었을 때 집단 나르시시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이다. 초기 코로나19 대응 관련해 우리나라 언론은 집단주의를 강조하며 한국의 자부심을 고취시키는 자국 고양 기사를 보도하는 경향이 강했으며 타국 상황을 보도할 때에는 극단적인 개인주의를 강조하며 무분별한 대응을 하는 모습으로 보도하는 경향이 있었다. 앞서 검토한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코로나19 국가별 위기대응의 책임 주체가 누구인지 프레임해 전달하면, 코로나19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과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경향과 논의를 반영해 본 연구는 자국과 타국의 코로나19 대응 기사에서 국가별 위기대응 주체에 대한 프레임에 따라서 집단 나르시시즘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집단 나르시시즘은 내집단 우

월성과 외집단 열등함의 강조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우리 집단이 우월하다고 강조하는 내용의 기사가 다른 집단이 열등하다고 강조하는 내용의 기사와 결합했을 때 집단 나르시시즘의 인식 정도는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자국의 코로나19 대응이 우월하다고 보도할 때 그 우월함이 정부 혹은 국민에게서 유래하는지 여부, 그리고 타국의 대응이 열등하다고 보도할 때 그 열등함의 대상이 타국 정부인지 타국 국민인지 여부를 조합한 결과에 따라서 집단 나르시시즘의 효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연구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했다.

연구문제 3. 코로나19 대응 기사 내 자국(국민 vs. 정부)과 타국(국민 vs. 정부)의 위기대응 책임 프레임은 집단 나르시시즘에 어떠한 상호작용 효과를 미치는가?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자국 고양 및 타국 비판 뉴스가 집단 나르시시즘에 의해 매개되어 최종적으로 자국 내 외국인에 대한 차별 정책 지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선행 연구들은 코로나19 뉴스 프레임에 따라 코로나19에 대한 차별 정책 지지가 달라진다고 보고하고 있다(최종혁·소지연, 2021; Lim et al., 2022). 그리고 특정 상황에 대한 집단 나르시시즘에 대한 지각은 외집단에 대한 불관용, 차별적인 행동, 군사적인 공격 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Golec de Zavala & Lantos, 2020).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코로나19 대응 뉴스에서 유발된 집단 나르시시즘은 한국 내 타국민에 대한 불관용 혹은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선행 연구들은 뉴스 보도가 차별 정책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사람들의 인지적, 감정적 반응은 매개효과를 보일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Kühne & Schemer, 2015). 선행 연구들의 논의를 종합해 본 연구는 코로나19 대응 뉴스가 자국 내 외국인, 즉 외집단에 대한 차별 정책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이러한 과정에 인지적 및 감정적 반응인 집단 나르시시즘이 매개효과를 보이는지 탐구하고자 한다. 이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4. 코로나19 기사 내 국내외 위기대응 책임 프레임은 타국민에 대한 차별 정책 지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5. 코로나19 기사 내 국내외 위기대응 책임 프레임이 타국민에 대한 차별 정책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집단 나르시시즘이 매개효과를 보이는가?

3. 연구방법

1) 실험 자극물 구성

본 연구는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실험을 구성하였다. 국가 기간 통신사인 연합뉴스 홈페이지에서 ‘코로나19 국민대응’, ‘K방역’ ‘코로나19 정부 대응’ 등을 키워드로 검색을 실시하였다. ‘[코로나 1년] 위기에 맞은 K방역, 3차 대유행에 흔들…성공적 마무리 어떻게’ (신선미, 2021) 기사를 추출해 실험 목적에 맞도록 수정 보완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자국 고양 내용 및 타국 비판 내용의 기사를 구성하였다. 위험 관련 메시지를 처리할 때 개인이 지닌 문화적 가치관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Borah et al., 2021)는 선행 연구를 참고로 자국 고양 내용은 집단주의 가치관을, 타국 비판 내용은 개인주의 가치관을 토대로 설계하였다(부록 II 참조).

본 연구는 2021년 4월, 온라인 설문조사회사를 통해 실험 연구를 진행하였다. 실험 자극물에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주요 변수들 외에 다른 가의 변수들의 혼재효과(confounding check)가 없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사전조사를 진행하였다(2021년 3월 2일~4일, 성인 100명 대상). 사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1년 4월 22일부터 28일까지 본조사를 실시했다. 본조사의 실험참여자들을 구성하기 위해 서울 및 경기도를 포함, 지역별 실제 인구 비례에 맞도록 각 지역별로 실험 참여자를 선정했으며 20세부터 69세까지 성인 400명을 할당 표집했다(20~29세 80명, 30~39세 80명, 40~49세 80명, 50~59세 80명, 60~69세 80명). 성별, 연령, 정치적 성향, 코로나19 피해 경험 등 참여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집단별로 최대한 동일하도록 참여자들을 비례할당 표본 추출하였다. 개별 참여자들이 집단에 배치되는 것은 무작위(random)로 이루어졌다(집단 1: 자국 고양 국민 × 타국 비판 국민 100명, 집단 2: 자국 고양 국민 × 타국 비판 정부 100명, 집단 3: 자국 고양 정부 × 타국 비판 국민 100명, 집단 4: 자국 고양 정부 × 타국 비판 정부 100명).

실험 참여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은 200명(50%)이며 여성은 200명(50%)이었다. 평균 연령은 44.34세(SD = 14.54)였다. 정치적 성향은 보수적 80명(20%), 중도적 200명(50%), 진보적 120명(30%)이었다. 집단별로 참여자들의 특성을 비교한 결과, 성별($\chi^2 = .00, p = 1.00$), 연령대($F(3, 396) = 0.01, p = 1.00$), 정치적 성향($F(3, 396) = 0.01, p = 1.00$)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코로나19 감염 경험에 대해 물어본 결과, 경험 ‘있음’이 27명(6.8%), ‘없음’이 373명(93.3%)이었으며, 각 집단별로 감염 경험 유무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F(3, 396) = 0.46, p = .710$).

2) 측정

(1) 조작점검 문항

조작점검 문항은 총 4문항으로 구성했다. ‘위기대응 메시지의 주체가 중요하다’는 연구(박경희, 2013; 최호철 외, 2019), 문화적 가치관을 메시지로 프레임했을 때 인식이 달라진다는 연구(Borah et al., 2021)를 바탕으로 기사 주체와 가치관의 차이를 묻는 문항으로 조작점검 문항을 구성했다. 구체적으로 ‘이 기사는 한국이 코로나19 대응에 효과적일 수 있었던 이유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개인 방역 지침을 잘 지켰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기사는 한국이 코로나19 대응에 효과적일 수 있었던 이유로 우리나라 정부가 방역 정책을 잘 시행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기사는 미국, 유럽 등 서구 국가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된 이유로 서구 국가 국민들이 개인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기사는 미국, 유럽 등 서구 국가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된 이유로 서구 국가 정부가 방역 정책을 철저히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로 구성했다.

(2) 집단 나르시시즘

집단 나르시시즘 문항은 선행 연구(Golec de Zavala et al., 2009)의 요인분석결과를 참고로 총 9문항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는 이 9문항이 하나의 요인으로 나오는지 파악하고자 요인분석을 실시했다. 요인추출방법으로는 주요인 추출을 실시하였고 베리맥스 회전을 하였다. 분석결과, 9 문항은 하나의 요인에 포함되었다(KMO = .93, Bartlett's $\chi^2 = 2746.71$ ($p < .001$), 누적분산 67.58%). 구체적인 문항은 다음과 같다.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의 권위를 빨리 인정해주었으면 좋겠다’,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마땅하다’,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나는 우리나라가 마땅히 받아야 할 인정을 받기 전까지 절대로 만족스럽지 못할 것이다’,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나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로부터 존중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비판할 때 화가 날 것 같다’,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국제 무대에서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었다면 세상은 더 나은 곳이 되었을 것이다’,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업적에 대해 알지 못하면 화가 날 것 같다’,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많은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진정한 가치가 종종 오해받는 것 같다’ 등 구성하였다(Cronbach $\alpha = .93$). 이에 대한 응답은 5점 리커트 척도로 하였다(1점=전혀 그렇지 않다, 5점=매우 그렇다).

(3) 차별 정책 지지

현재 한국이 시행하고 있는 코로나19 정책을 참고로 하여 문항을 구성했다. 코로나19 발발 초기, 한국 정부는 국내에서 방역 지침(예, 마스크 착용, 모임 금지, 다중 시설 이용 금지 등)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하는 정책을 실시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는 시기(2021년 상반기 이후, 본 연구의 연구 시점)에는 코로나19 해외 유입을 우려해 타국 및 외국인에 대해 제한적이고 처벌적인 정책을 진행하기도 하였다(최종혁·소지연, 2021). 이러한 점을 토대로 본 연구는 외집단에 대한 처벌적인 정책으로 문항을 구성했다. 구체적인 차별 정책 문항은 ‘코로나19 발생률이 높은 타국 국민들이 한국에 입국할 때, 자가 격리 기간을 위반하면 이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코로나19 발생률이 높은 타국 국민들의 한국 입국 제한 조치를 강력하게 실행해야 한다’, ‘코로나19 발생률이 높은 타국 국민들이 한국에 입국할 때, 한국 체류 기간을 제한하는 조치를 실행해야 한다’, ‘코로나19 발생률이 높은 타국 국민들이 한국에 입국할 때,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본국으로 즉각 돌려보내야 한다’ 등 4문항으로 구성했으며(Cronbach $\alpha = .77$) 이에 대한 응답은 5점 리커트 척도로 하였다(1점=전혀 그렇지 않다, 5점=매우 그렇다).

(4) 통제변수

성별, 연령, 학력, 월수입, 정치적 성향, 일주일 간 매스 미디어 및 소셜 미디어 이용량 등 인구 통계학적 변수들을 측정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는 분석을 진행할 때, 정치적 성향, 내집단 만족감, 정부기관 신뢰도 및 코로나19 치료 병원의 신뢰도를 통제변수로 투입하였다. 본 연구가 조작한 메시지는 코로나19 정부 정책에 관련된 것이다. 때문에 개인이 지닌 정치적 성향에 따라 실험 자극물에 대한 반응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정치 성향(1=진보적, 10=보수적)을 통제변수로 투입하였다. 내집단 만족감은 집단 나르시시즘과 유사한 개념이지만, 타집단에 대한 긍정성과 부정성 지각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선행 연구들은 내집단 만족감을 통제변수로 투입해 집단 나르시시즘의 효과를 살펴보았다(Golec de Zavala et al., 2009). 이에 본 연구도 내집단 만족감(‘나는 한국 사람이라서 기쁘다.’ ‘나는 한국 사람들이 자랑스러워 할 점들이 많다고 생각한다’, ‘나는 한국 사람이라서 즐겁다’, ‘나는 한국 사람이라서 기분이 좋다’, 응답 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을 통제변수로 투입했다. 그리고 위기 상황이 발발했을 때, 관련 대응 기관(예, 정부기관, 공공기관, 치료병원 등)에 대한 신뢰도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한다(김서용, 2021). 이에 따라 코로나19 정부 기관 신뢰도(귀하께서는 정부기관(예,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 안전처)를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1점=전혀 신뢰하지 않는

다, 7점=매우 신뢰한다), 코로나19 치료병원 신뢰도(귀하께서는 코로나19 치료병원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1점=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7점=매우 신뢰한다)도 통제변수로 투입하였다.

4. 분석결과

1) 사전조사 결과

본 연구는 본 조사에 앞서 실험 자극물에 대한 혼재효과(confounding check)를 점검하기 위한 사전조사를 2021년 4월 24~28일 진행했다. 본 연구는 코로나19 대응 기사 내 자국의 위기대응 책임 프레임 2(자국 고양 국민 vs. 자국 고양 정부), 타국의 위기대응 책임 프레임 2(타국 비판 국민 vs. 타국 비판 정부)으로 집단 간 요인설계를 하였다. 사전조사는 총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각 집단에 성별, 연령대가 균등하도록 25명씩 배치하였다. 실험 자극물의 혼재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메시지의 질, 주장 강도 등의 스케일(O'Keefe, 2003; Zhao, Strasser, Cappella, Lerman, & Fishbein, 2011)을 활용했다. 분석결과, 지각된 주장 강도(argument strength)는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으며($F(3, 96) = 1.11, p = .348$), 메시지의 질(quality) 역시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F(3, 96) = 0.76, p = .517$). 지각된 현실성(reality) ($F(3, 96) = 0.34, p = .799$), 지각된 정보성(informativeness) ($F(3, 96) = 1.02, p = .386$)도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2) 본 조사 결과

(1) 조작점검 결과

본 조사에서 실험 자극물이 연구자의 의도대로 잘 설계되었는지 조작점검을 실시하였다. 실험 자극물에 포함된 자국 고양 내용 및 타국 비판 내용을 바탕으로 조작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 기사는 한국이 코로나19 대응에 효과적일 수 있었던 이유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개인 방역 지침을 잘 지켰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에 대해 분석결과 집단 간 차이는 유의미하였다($M_{자국국민}(SD) = 4.00(0.75)$, $M_{자국정부}(SD) = 3.72(0.94)$, $t(398) = 3.16, p = .002$) '이 기사는 한국이 코로나19 대응에 효과적일 수 있었던 이유로 우리나라 정부가 방역 정책을 잘 시행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에 대해 분석한 결과,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하였다($M_{자국국민}(SD) = 3.29(1.08)$, $M_{자국정부}(SD) = 3.61(1.08)$, $t(398) = -2.96, p = .003$)

이와 함께 '이 기사는 미국, 유럽 등 서구 국가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된 이유로 서구 국가 국

민들이 개인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에 대해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했다($M_{\text{타국국민}}(SD) = 3.86(0.75)$, $M_{\text{타국정부}}(SD) = 3.52(0.94)$, $t(398) = 3.88$, $p < .001$). 그리고 '이 기사는 미국, 유럽 등 서구 국가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된 이유로 서구 국가 정부가 방역 정책을 철저히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에 대해 집단 간 차이는 유의미했다($M_{\text{타국국민}}(SD) = 3.10(0.90)$, $M_{\text{타국정부}} = 3.49(0.82)$, $t(398) = -4.53$, $p < .001$). 이 결과들을 보았을 때, 실험 자극물 처치가 잘 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2) 주요변수 상관관계, 평균, 표준편차

주요변수와 통제변수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피어슨 상관관계수 분석을 하였다. 변수들의 상관관계, 평균, 표준편차는 <Table 1>과 같다. 집단 나르시시즘은 처벌 정책 지지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으며($r = .12$, $p < .05$), 정부 신뢰도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r = .53$, $p < .01$).

Table 1. Correlations between Main and Control Variables

	1	2	3	4	5	6
1. Collective Narcissism	-					
2. Punitive Policy Support	.12*	-				
3. Government Credibility	.53**	-.11*	-			
4. Hospital Credibility	.25*	-.03	.59**	-		
5. Political Orientation	-.28**	.13**	-.44**	-.22**	-	
6. In-group Satisfaction	.50**	-.01	.46**	.31**	-.27**	-
M(SD)	3.21(0.88)	4.22(0.66)	4.80(1.52)	5.22(1.13)	4.76(2.01)	3.51(0.86)

$N = 400$, * $p < .05$, ** $p < .01$

(3) 집단 차이 검증

연구문제 1, 연구문제 2, 연구문제 3을 검증하기 위해 이원변량분석(two-way ANOVA)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집단 나르시시즘에 대해 자국의 위기대응 책임 프레임(국민 $M(SD) = 3.15(0.95)$, 정부 $M(SD) = 3.27(0.82)$ 의 주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았으며($F(1, 392) = 0.16$, $p = .690$, $\eta^2_p = .00$), 타국의 위기대응 책임 프레임(국민 $M(SD) = 3.24(0.86)$, 정부 $M(SD) = 3.18(0.92)$ 의 주효과 역시 유의미하지 않았다($F(1, 392) = 0.89$, $p = .345$, $\eta^2_p = .00$). 반면 자국의 위기대응 책임 프레임과 타국의 위기대응 책임 프레임 간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미하였다, $F(1, 392) = 4.24$, $p = .023$, $\eta^2_p = .01$.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하여 사후검증(Bonferroni)을 실

시한 결과, 타국 비판 국민 조건에서 자국 고양 정부 프레임의 집단 나르시즘 평균($M_{\text{타국국민자국정부}} = 3.35, SE = 0.07$)이 자국 고양 국민 프레임($M_{\text{타국국민자국국민}} = 3.14, SE = 0.07$)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F(1, 392) = 4.98, p = .026, \eta_p^2 = .01$. 반면, 타국 비판 정부 조건에서는 자국 고양의 책임 프레임이 국민인 경우($M_{\text{타국정부자국국민}} = 3.24, SE = 0.07$)가 정부인 경우($M_{\text{타국정부자국정부}} = 3.12, SE = 0.07$)보다 높았지만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F(1, 392) = 1.01, p = .314$ (Figure 1 참조). 이러한 결과는 코로나19 대응 관련해 자국(한국) 정부의 방역 정책이 잘 진행됐다는 기사를 타국 국민들이 못했다는 내용과 함께 제시하면, 사람들의 집단 나르시즘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4) 집단 나르시즘의 매개효과 검증

연구문제 4 ‘코로나19 기사 내 국내외 위기대응 책임 프레임은 타국민에 대한 처벌 정책 지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와 연구문제 5 ‘코로나19 기사 내 국내외 위기대응 책임 프레임이 타국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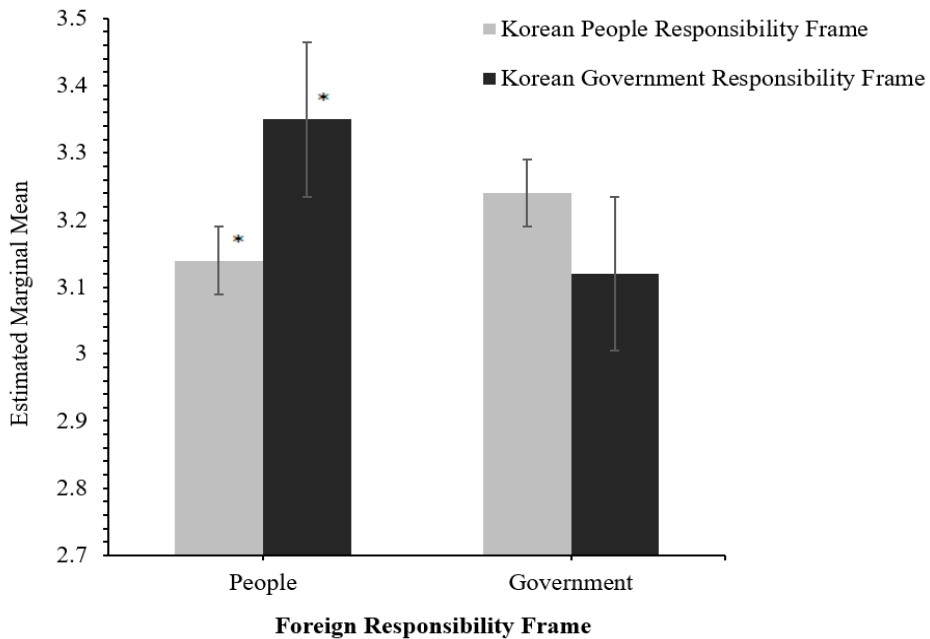


Figure 1. Interaction Effect of Korea Responsibility Frame and Foreign Responsibility Frame on Collective Narcissism. Note. Y-axis indicates the estimated marginal means of collective narcissism. The ‘*’ next to the bar indicates that among those who read articles with the foreign people responsibility frame, the means of conditions presenting the Korean people versus government responsibility frame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each other at $p < .05$.

에 대한 처벌 정책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집단 나르시시즘이 매개효과를 보이는가?’를 탐구하기 위해 SPSS PROCESS Macro 모델 8번을 활용해 분석을 진행하였다. Model 8번은 매개변수와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상호작용을 검증할 수 있는 모델로 독립변수, 조절변수, 그리고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상호작용 효과를 한꺼번에 볼 수 있다(Hayes, 2013). Model 8번은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상호작용 중 어떠한 조건에서 연구자가 보고자 하는 매개변수 효과가 유의미한지 검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조절변수로 투입된 변수가 조절된 매개효과를 보이면서도 검증할 수 있다. 또한 이 모델은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상호작용이 종속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할 수 있다. 앞선 본 연구 분석에서 집단 나르시시즘에 대해 자국의 위기대응 책임 프레임과 타국의 위기대응 책임 프레임의 주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이 두 개 프레임 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연구문제 4), 집단 나르시시즘의 매개효과(연구문제 5)를 검증하기 위해 자국의 위기대응 책임 프레임을 독립변수로, 타국의 위기대응 책임 프레임을 조절변수로 설정했으며 Model 8번을 활용해 분석을 진행했다.

조절변수의 값에 따른 간접효과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는 조절된 매개효과(moderated mediation)는 간접효과와 조절변수의 관계를 수량화한 조절된 매개지수의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는지에 따라 유의성이 검증된다(Hayes, 2013). 조절된 매개모델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독립변수가 매개변수를 통해 종속변수에 미치는 간접효과(매개효과)와 조절변수가 투입된 경로에서 조절효과가 유의해야 한다(정선호·서동기, 2016). 독립변수는 자국의 위기대응 책임 프레임(가변수 입력 국민=1, 정부=0), 매개변수는 집단 나르시시즘, 종속변수는 처벌 정책 지지, 조절변수는 타국의 위기대응 책임 프레임(가변수 입력 국민=1, 정부=0)로 투입했다. 통제변수로 이원변량 분석의 통제변수와 같은 정치적 성향, 내집단 만족감, 정부기관 신뢰도, 코로나19 치료병원 신뢰도를 투입했으며, 부트스트랩 샘플은 10,000으로 설정하고 신뢰구간은 95%로 지정했다.

분석결과, 연구문제 4와 관련해 자국의 위기대응 책임 프레임이 처벌 정책 지지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았으며($B = .06$, 95% CI = $-.05, .19$), 자국의 위기대응 책임 프레임과 타국의 위기대응 책임 프레임의 상호작용 효과도 유의미하지 않았다($B = -.02$, 95% CI = $-.28, .23$). 이를 토대로 코로나19 기사 내 국내외 위기대응 책임 프레임이 처벌 정책 지지에 미치는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연구문제 5에 대한 분석결과, 자국의 위기대응 책임 프레임과 타국의 위기대응 책임 프레임의 상호작용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했으며($B = -.32$, 95% CI = $-.60, -.05$), 타국 위기대응 책임 프레임의 조절된 매개지수 또한 유의미하였다($B = -.06$, 95% CI = $-.15, -.02$). 타국 위기대응 책임 프레임의 조건부 간접효과를 분석한 결과, 타

국 비판 정부 조건에서는 집단 나르시즘의 매개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B = .02$, 95% CI = $-.02, .08$) 반면, 타국 비판 국민 조건에서는 집단 나르시즘이 자국 위기대응 책임 프레임(국민=1, 정부=0)과 처벌 정책 지지 간의 관계를 유의미하게 매개하였다($B = -.04$, 95% CI = $-.09, -.002$) (Table 2, Figure 2 참조). 이 결과를 심도있게 해석하면, 타국 비판 국민 조건에서 자국 고양 정부 프레임이 자국 고양 국민 프레임에 비해 상대적으로 집단 나르시즘을 높게 유발시키며, 이를 통해 집단 나르시즘은 처벌 정책 지지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 결과는 코로나19 대응 기사에서 타국 국민을 비판하는 내용과 자국 정부를 고양하는 내용이 결합하면 집단 나르시즘은 유의미하게 증가하며 이 과정을 통해 결과적으로 외국인을 포함한 외집단에 대한 처벌 정책 지지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Table 2. The Mediating Effect of Collective Narcissism

DV: Collective Narcissism, $R^2 = .38$, $F(6, 393) = 34.76$, $p < .001$					
	<i>B</i>	<i>SE</i>	<i>t</i>	<i>LLCI</i>	<i>ULCI</i>
Korea Responsibility Frame (a) (people=1, government=0)	.11	.10	1.13	-.08	.31
Foreign Responsibility Frame (b) (people=1, government=0)	.22	.10	2.23*	.03	.42
a×b	-.32	.14	-2.29**	-.60	-.05
Conditional Effects of the Focal Predictor (Korea Responsibility Frame) at Value of the Moderator					
Moderator: Foreign Responsibility Frame	<i>B</i>	<i>SE</i>	<i>t</i>	<i>LLCI</i>	<i>ULCI</i>
People (1)	-.21	.10	-2.09*	-.41	-.01
Government (0)	.11	.10	1.14	-.08	.31
DV: Punitive Policy Support, $R^2 = .08$, $F(6, 393) = 5.44$, $p < .001$					
	<i>B</i>	<i>SE</i>	<i>t</i>	<i>LLCI</i>	<i>ULCI</i>
Korea Responsibility Frame (a)	.06	.06	1.06	-.05	.19
Foreign Responsibility Frame (b)	-.02	.13	-0.21	-.19	.16
a×b	-.02	.12	-0.17	-.28	.23
Collective Narcissism	.20	.05	4.46***	.11	.29
Conditional Indirect Effect					
Path	Condition	Effect	Boot <i>SE</i>	Boot <i>LLCI</i>	Boot <i>ULCI</i>
Korea Responsibility Frame (people=1, government=0) → Collective Narcissism → PPS	Foreign People Responsibility (1)	-.04	.02	-.09	-.002
	Foreign Government Responsibility (0)	.02	.02	-.02	.08
Moderated Mediation					
Path	Effect	Boot <i>SE</i>	Boot <i>LLCI</i>	Boot <i>ULCI</i>	
Korea Responsibility Frame (people=1, government=0) → Collective Narcissism → PPS	-.06	.04	-.15		-.02

* $p < .05$, ** $p < .01$, *** $p < .001$. Note. 'PPS' refers to Punitive Policy Sup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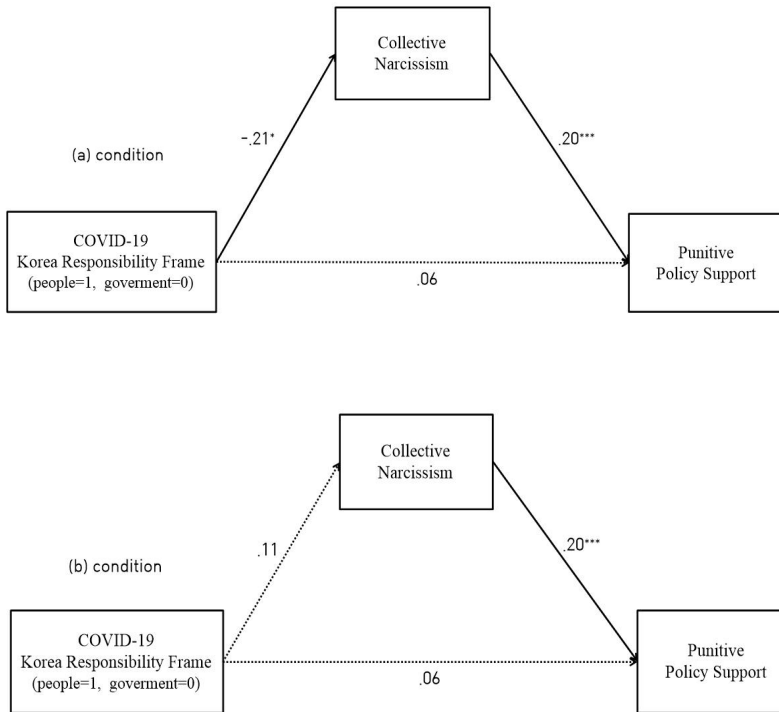


Figure 2. The mediating effect of collective narcissism in the process of Korea responsibility frame affecting support for punitive policy under the conditions of (a) foreign people responsibility frame and (b) foreign government responsibility frame. Note. Significant paths are indicated by bold lines, whereas dotted lines mean insignificant paths. * $p < .05$, ** $p < .01$, *** $p < .001$

5. 결론 및 논의

1)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는 코로나19 대응 관련한 뉴스 유형에 따라 사람들의 인식과 정책 지지가 달라지는지 탐구하였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대응 기사를 자국의 위기대응 책임 프레임(자국 고양 국민 vs. 자국 고양 정부) 및 타국의 위기대응 책임 프레임(타국 비판 국민 vs. 타국 비판 정부)으로 구분해 이 기사들이 집단 나르시시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대응 기사가 타국민에 대한 처벌 정책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집단 나르시시즘이 매개효과를 보이는지 검증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코로나19 기사 내 자국의 위기대응 책임 프레임(자국 고양 국민 vs. 자국 고양 정부)에 따라 집단 나르시시즘이 달라지는가?’ 검증 결과, 자국의 위기대응 책임 프레임에 따라 집단 나르시시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연구문제 2 ‘코로나19 기사 내 타국의 위기대응 책임 프레임(타국 비판 국민 vs. 타국 비판 정부)에 따라 집단 나르시시즘이 달라지는가?’ 검증 결과, 타국의 위기대응 책임 프레임에 따라 집단 나르시시즘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연구문제 3 ‘코로나19 대응 기사 내 자국(국민 vs. 정부)과 타국(국민 vs. 정부)의 위기대응 책임 프레임은 집단 나르시시즘에 어떠한 상호작용 효과를 미치는가?’를 검증한 결과 자국의 위기대응 책임 프레임과 타국의 위기대응 책임 프레임 간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미하였다. 구체적으로 타국 비판 국민 조건에서 자국 고양 정부 프레임의 집단 나르시시즘 평균이 자국 고양 국민 프레임의 평균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코로나19 대응 기사 관련해 타국 국민이 잘못하고 있다는 내용에 자국 정부가 잘하고 있다는 내용이 함께 제시되면, 집단 나르시시즘과 같은 맹목적 애국심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기사 속 타국 국민에 대한 내용과 자국 정부에 대한 내용의 특징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언론들은 타국 국민들이 코로나19 예방행동에 소홀한 이유는 개인주의 가치관 때문이라고 제시해 왔다. 전 세계적인 위기가 발발했을 때, 집단주의 가치관을 지닌 사람들은 개인의 이익을 희생하더라도 집단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반면, 개인주의 가치관을 지닌 사람들은 개인의 자유를 우선시하기 때문에 집단 대응 체계를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Borah et al., 2021). 이러한 가치관을 근거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타국 국민들의 방충한 행동(예, 마스크 착용하지 않기, 단체 파티 즐기 등)에 대해 더 비판적인 시각을 가졌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한국 정부의 ‘K방역’이 효과적이었다는 기사 내용은 국가 단위의 자부심을 더 고취시킬 가능성이 높다(여선하·차희원, 2021). ‘방역 자부심’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이 인식은 우리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더 우월하다는 내셔널리즘을 더 높게 할 가능성이 있다(양준용 외, 2020). 때문에 이러한 자국 고양 정부 기사의 내용은 한국 국민이 스스로 잘했다는 자국 고양 국민의 내용보다 내집단의 우월성 및 타집단의 열등함을 강조하는 집단 나르시시즘을 더 높게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두 가지 내용이 병합해 집단 나르시시즘을 가장 높게 유발시켰다고 할 수 있다.

연구문제 4 ‘코로나19 기사 내 국내외 위기대응 책임 프레임은 타국민에 대한 처벌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증한 결과, 위기대응 책임 프레임은 처벌 정책 지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 결과는 뉴스 프레임은 정책 지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고, 수용자의 인지, 감정 반응을 매개로 간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들의 결과(최종혁·소지연, 2021; Kühne et al., 2015; Lim et al., 2022)를 지지하는 것이다.

연구문제 5 ‘코로나19 기사 내 국내의 위기대응 책임 프레임이 타국민에 대한 처벌 정책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집단 나르시시즘이 매개효과를 보이는가?’를 검증한 결과, 집단 나르시시즘의 매개효과는 유의미하였다. 구체적으로 타국 비판 국민 조건일 때, 자국의 위기대응 책임 프레임은 집단 나르시시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어 집단 나르시시즘은 처벌 정책 지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구체적으로 타국 비판 국민 조건에서 자국 정부를 칭찬하는 프레임은 자국 국민을 칭찬하는 프레임에 비해 상대적으로 집단 나르시시즘을 더 높게 유발시켰으며, 이러한 조건에서 유발된 집단 나르시시즘은 처벌 정책 지지를 유의미하게 증가시켰다. 이 결과는 코로나19 대응 기사에서 자국을 고양하는 기사 내용의 주체가 자국(한국) 국민이 아닌 자국 정부일 때, 타국을 비판하는 기사 내용의 주체가 타국 정부가 아닌 타국 국민일 때, 집단 나르시시즘은 유의미하게 증가하며 이 과정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타국민에 대한 처벌 정책 지지가 높아진다는 것을 시사한다.

2) 이론적 실무적 함의

이러한 분석결과들을 토대로 하면 본 연구는 이론적, 실무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함의를 가진다. 첫째, 본 연구는 코로나19 대응 관련한 기사 프레임의 영향력을 검증했으며 이를 통해 유의미한 결론을 도출했다. 선행 연구들은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위기대응 메시지의 구축이 중요하며 위기대응의 책임 주체에 대한 서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박경희, 2013). 이와 함께 코로나19 대응 관련해 책임 주체에 대한 프레임은 일반인의 인식과 처벌 정책 지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하였다(최종혁·소지연, 2021; Lim et al., 2022).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서 보듯이, 한국 국민이 아닌 한국 정부를 칭찬하는 기사 내용과 타국 정부가 아닌 타국 국민을 비판하는 기사 내용의 결합은 집단 나르시시즘을 가장 높게 유발시켰으며 이렇게 유발된 집단 나르시시즘은 타국민에 대한 처벌 정책 지지를 증가시켰다. 이러한 결과는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자국을 칭찬하는 기사만으로는 집단 나르시시즘은 높게 발현되지 않으며, 비교 대상(예, 미국, 독일 등 서구 국민들이 못했다는 내용)이 있을 경우, 우리 집단의 우월성이 높아지고 외집단을 처벌하고 배척하는 정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이 결과는 자국을 고양하는 기사 내용의 책임 주체가 정부일 때, 타국을 비판하는 기사 내용의 책임 주체는 국민일 때,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편향된 인식이 높아질 수 있으며 이는 사회구성원 간의 갈등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 대한 혐오, 처벌, 공격 관련된 정책 지지를 유발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향

후 언론들은 코로나19와 같은 세계적인 재난 관련 보도를 할 때, 책임 주체에 대한 서술의 중요성을 고려해야 하며, 이와 함께 내집단의 우월성 및 외집단의 열등함을 비교하는 내용적인 프레임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뉴스 유형은 코로나19에 대한 세계적인 공동대응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자각해 향후 언론들은 코로나19 보도를 할 때 외집단 및 다른 나라의 구성원들을 비하하고 폄하하는 내용은 자제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코로나19 대응 기사에 개인주의, 집단주의와 같은 문화적 가치관 내용이 포함돼 있으면 코로나19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는 달라질 수 있다(Borah et al., 2021)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현재 한국 사람들은 개인주의 문화권보다 집단주의 문화권이 더 우월하게 코로나19 대응을 한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K-방역에 대한 국민적 자부심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양준용 외, 2020). 본 연구는 코로나19 맥락에서 문화적 가치관이 포함된 기사의 내용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팬데믹 상황에서 문화적 가치관에 따른 집단 구분은 구성원 간 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 향후 언론들은 해당 사회의 맥락에 맞는 가치관을 토대로 그 사회가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사실적으로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집단 나르시시즘 변수를 도입해, 이 변수가 영향력을 보이는지 검증하였다. 집단 나르시시즘은 우리 집단은 우월하며 타 집단은 열등하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 인식은 외집단에 대한 차별, 공격, 군사적 행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Golec de Zavala et al., 2009). 선행 연구들은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의 재난이 전 세계를 덮쳤을 때, 국가 단위의 집단 나르시시즘은 맹목적 애국심을 부추기며 외집단 배척, 인종 차별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제시해 왔다(Van Bavel et al., 2020). 실제로 코로나19 보도 프레임에 따라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분노, 혐오가 강하게 유발되었다는 결과들이 잇따라 제시되고 있다(Devakumar et al., 2020; Feng & Cheng, 2020). 본 연구는 코로나19 대응 기사에 자국 정부를 칭찬하는 내용과 타국 국민을 비판하는 내용이 함께 포함돼 있으면 집단 나르시시즘이 높게 유발되며, 이 과정을 통해 차별 정책 지지가 높아진다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집단 나르시시즘 개념의 타당성을 지지하고 관련 이론의 적용 가능 영역을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넷째, 본 연구는 코로나19 관련해 우리나라 언론의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을 것이다. 코로나19 이슈를 정치적 이슈, 특히 정치적 성향에 따른 갈등 유발 이슈로 쟁점화한 데에는 언론의 책임이 컸다고 할 수 있다(Hart et al., 2020). 코로나19 초기 대응 관련해 우리나라 언론은 '정부가 방역을 잘했다'는 위주로 보도하는 경향이 있으며, 타국이 못했다고 보도할 때는 '타국 국민들이 개인주의적으로 방종하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보도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보도 경향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민 여론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탐색이 필요하다. 실제로 본 연구 결과에서 이러한 보도 경향은 집단 나르시시즘을 증가시켜 한국 내 외집단에 대한 차별, 불관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향후 우리나라 언론들은 코로나19 대응 관련해 내집단의 우월함과 외집단의 열등함을 강조하는 보도를 지양하고 내집단과 외집단 상관없이 국제적인 협력을 촉진시킬 수 있는 보도 전략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향후 언론들은 코로나19에 대한 국제적인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맹목적 애국심, 내셔널리즘, 집단 나르시시즘을 자극할 수 있는 보도 기사는 자제해야 할 것이다.

3) 한계 및 제안점

본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안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19 국내의 위기대응 책임 프레임 관련해 자국 대응 및 타국 대응에 대한 내용을 좀 더 풍부하게 하여, 국가별 대응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와 정책 지지를 비교 검증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내집단 우월성과 외집단 열등함을 측정하는 변수로 집단 나르시시즘만 채택하였다. 맹목적 애국심, 건설적 애국심, 자민족 중심주의 등의 변수를 추가적으로 더 투입해 검증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집단 나르시시즘 변수를 더 정교화하여 이 개념을 측정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셋째, 정부 신뢰도, 코로나19 관련 공공기관 신뢰도가 뉴스 프레임 효과 측면에서 조절변수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변수들의 영향력을 검증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대응 관련한 기사 내용의 근거로 개인주의, 집단주의 등 두 가지 문화적 가치관만 채택하였다. 문화적 가치관의 유형을 확장해 뉴스 보도의 영향력에서 문화적 가치관이 어떤 효과를 보이는지 탐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References

- Baumeister, R. F., Bushman, B. J., & Campbell, W. K. (2000). Self-esteem, narcissism, and aggression: Does violence result from low self-esteem or from threatened egotism?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9(1), 26-29.
- Bizman, A., & Yinon, Y. (2004). Social self-discrepancies from own and other standpoints and collective self-esteem.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44(2), 101-113.
- Borah, P., Hwang, J., & Hsu, Y. C. (2021). COVID-19 vaccination attitudes and intention: Message framing and the moderating role of perceived vaccine benefits. *Journal of Health Communication*, 26(8), 523-533.
- Bushman, B. J., & Baumeister, R. F. (1998). Threatened egotism, narcissism, self-esteem, and direct and displaced aggression: Does self-love or self-hate lead to viol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1), 219-229.
- Choi, H., Kwon, Y., & Kim, M. (2019). A study of the moderating effect of legal and institutional syste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isaster response competency and disaster management performance. *Korean Policy Sciences Review*, 23(2), 25-48.
- Choi, J., & So, J. (2021). The effects of COVID-19 news frames on support for punishment policy in individuals : The mediating effects of responsibility perception and anger.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65(4), 70-105.
- Chong, Y. Y., Chien, W. T., Cheng, H. Y., Chow, K. M., Kassianos, A. P., Karekla, M., & Gloster, A. (2020). The role of illness perceptions, coping, and self-efficacy on adherence to precautionary measures for COVID-19.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7(18), 6540.
- Cichocka, A. (2016). Understanding defensive and secure in-group positivity: The role of collective narcissism. *European Review of Social Psychology*, 27(1), 283-317.
- Devakumar, D., Shannon, G., Bhopal, S. S., & Abubakar, I. (2020). Racism and discrimination in COVID-19 responses. *The Lancet*, 395(10231), 1194.
- Devlin, K., & Connaughton, A. (2020). Most approve of national response to COVID-19 in 14 advanced economies. *Pew Research Center*.
- Dhanani, L. Y., & Franz, B. (2021). Why public health framing matters: An experimental study of the effects

- of COVID-19 framing on prejudice and xenophobia in the United States, *Social Science & Medicine*, 269, 113572.
- Exline, J. J., Baumeister, R. F., Bushman, B. J., Campbell, W. K., & Finkel, E. J. (2004). Too proud to let go: Narcissistic entitlement as a barrier to forgiv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7(6), 894-912.
- Federico, C. M., & Golec de Zavala, A. G. (2018). Collective narcissism and the 2016 US presidential vote. *Public Opinion Quarterly*, 82(1), 110-121.
- Feng, E., & Cheng, A. (2020). Critics say china has suppressed and censored information in coronavirus outbreak. *National public radio*, February, 8.
- Gamson, W., & Modigliani, A. (1989). Media discourse and public opinion on nuclear power: A constructionist approach.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5, 1-37.
- Golec de Zavala, A., & Cichocka, A. (2012). Collective narcissism and anti-Semitism in Poland. *Group Processes & Intergroup Relations*, 15(2), 213-229.
- Golec de Zavala, A., Cichocka, A., & Bilewicz, M. (2013). The paradox of in-group love: Differentiating collective narcissism advances understanding of the relationship between in group and out group attitudes. *Journal of Personality*, 81(1), 16-28.
- Golec de Zavala, A. G., Cichocka, A., Eidelson, R., & Jayawickreme, N. (2009). Collective narcissism and its social consequenc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7(6), 1074–1096.
- Golec de Zavala, A., Cichocka, A., & Iskra-Golec, I. (2013). Collective narcissism moderates the effect of in-group image threat on intergroup hostil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4(6), 1019-1039.
- Golec de Zavala, A., & Lantos, D. (2020). Collective narcissism and its social consequences: The bad and the ugly.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29(3), 273-278.
- Gollust, S. E., Fowler, E. F., & Nagler, R. H. (2021). Prevalence and potential consequences of exposure to conflicting information about mammography: Results from nationally-representative survey of US adults. *Health Communication*, 1-14.
- Hart, P. S., Chinn, S., & Soroka, S. (2020). Politicization and polarization in COVID-19 news coverage. *Science Communication*, 42(5), 679–697.
- Hayes, A. (2013).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New York: Guilford.

- Hong, J., & Cha, H. (2018). Government's crisis communication based on the main theme, source, crisis responsibility, frame analysis and the network analysis on the side effects of drug of the pres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8(4), 575-585.
- Hornik, R., Kikut, A., Jesch, E., Woko, C., Siegel, L., & Kim, K. (2021). Association of COVID-19 misinformation with face mask wearing and social distancing in a nationally representative US sample. *Health communication*, 36(1), 6-14.
- Iyengar, S. (1991). *Is anyone responsible? How television frames political issues*.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Jang, H. (2022, May 15). *Half of the people "do not trust the government quarantine measures...COVID-19 will last 1-2 more years"*. Hankyoreh. Retrieved 3/17/22 from <https://www.hani.co.kr/arti/society/health/1034877.html>
- Jordan, C. H., Spencer, S. J., & Zanna, M. P. (2005). Types of high self-esteem and prejudice: How implicit self-esteem relates to ethnic discrimination among high explicit self-esteem individual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1(5), 693-702.
- Jung, S., & Seo, D. (2016). Assessing mediated moderation and moderated mediation: Guidelines and empirical illustration.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General*, 35(1), 257-282.
- Kim, S. (2021). Analysis of impact factors of trust in government under the crisis of COVID-19: Focusing on the change in determinant structure of trust in government by the difference from trusted objects and aggregation. *The Korea Association for Policy Studies*, 30(4), 33-65.
- Kim, S. H. (2015). Who is responsible for a social problem? News framing and attribution of responsibility.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92 (3), 554-558.
- Kim, S., & Cha, H. (2016). The effect of responsibility attribution message and emotion on the policy support and health behavior in obesity circumstance: An application of attribution theory and theory of planned behavior.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60(2), 369-398.
- Ko, D. (2020, April 3). *The end of Western supremacy?*. The JoongAng Ilbo. Retrieved 2/1/21 from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746270#home>
- Korea Press Foundation (2020). *Changes in the everyday life after COVID-19 in Korea*. Retrieved 3/17/22 from <https://www.kpf.or.kr/synap/skin/doc.html?fn=1616717455105.pdf&rs=/synap/result/research/>
- Kraus, B., & Kitayama, S. (2019). Interdependent self-construal predicts emotion suppression in Asian Americans: An electro-cortical investigation. *Biological Psychology*, 146, 107733.

- Kühne, R., & Schemer, C. (2015). The emotional effects of news frames on information processing and opinion formation. *Communication Research*, 42(3), 387-407.
- Kühne, R., Weber, P., & Sommer, K. (2015). Beyond cognitive framing processes: Anger mediates the effects of responsibility framing on the preference for punitive measures. *Journal of Communication*, 65 (2), 259-279.
- Lim, I. -J., Shim, M., Lee, C. -J., Jeong, S. -H., & Lee, H. (2022, May). Who is responsible for the Covid-19 spread? The effects of responsibility frames and headline types in news on responsibility attribution, emotions, and policy support.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conference of International Communication Association for Health Communication Division, Paris.
- Marchlewska, M., Cichocka, A., Panayiotou, O., Castellanos, K., & Batayneh, J. (2018). Populism as identity politics: Perceived in-group disadvantage, collective narcissism, and support for populism. *Social Psychological and Personality Science*, 9(2), 151-162.
- Martikainen, J., & Sakki, I. (2021). How newspaper images position different groups of people in relation to the COVID-19 pandemic: A social representations approach. *Journal of Community & Applied Social Psychology*, 31(4), 465-494.
- Nan, A., Iles, I. A., Yang, B., & Ma, Z. (2022) Public health messaging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nd beyond: Lessons from communication science, *Health Communication*, 37(1), 1-19.
- Nan, X., & Thompson, T. (2020). Introduction to the special forum on “Public Health Communication in an Age of COVID-19.” *Health Communication*, 35(14), 1705–1706.
- Nan, X., & Thompson, T. (2021). Introduction to the special issue on “Public Health Communication in an Age of COVID-19.” *Health Communication*, 36(1), 1–5.
- Nkengasong, J. N. (2021). COVID-19: unprecedented but expected. *Nature Medicine*, 27(3), 364.
- Niederdeppe, J., Shapiro, M. A., & Porticella, N. (2011). Attributions of responsibility for obesity: Narrative communication reduces reactive counterarguing among liberals.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37(3), 295-323.
- O’Keefe, D. J. (2003). Message properties, mediating states, and manipulation checks: Claims, evidence, and data analysis in experimental persuasive message effects research. *Communication theory*, 13(3), 251-274.
- Park, K. (2013). How do the people evaluate crisis response message of government public service? The effect of crisis communication strategy, emotional appeal, issue involvement and crisis responsibility

- of government on acceptance of crisis communication and evaluation of government credibility by the people. *Journal of Public Relations*, 17(3), 414-468.
- Pyo, S., & Jeong, J. (2021). Media self-portraits during a pandemic outbreak of infectious diseases and hate: The impact of 'Hate-promoting expression' in COVID-19-related news coverage on users.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65(2), 286-329.
- Roberto, K. J., Johnson, A. F., & Rauhaus, B. M. (2020). Stigmatization and prejudice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dministrative Theory & Praxis*, 42(3), 364-378.
- Shin, S. (2021, January 13). [COVID-19 1 year] K-quarantine shining in crisis, shaken by the 3rd pandemic... How to finish successfully. Yonhap News. Retrieved 2/1/21 from <https://www.yna.co.kr/view/AKR20210112073600530?input=1195m>
- The Korean Society of Infectious Diseases (2022. 2. 22). *Pan-Academic COVID-19 Response Committee, National Recommendation to the Government*.
- Van Bavel, J. J., Baicker, K., Boggio, P. S., Capraro, V., Cichocka, A., Cikara, M., et al. (2020). Using social and behavioral science to support COVID-19 pandemic response. *Nature Human Behavior*, 4, 460-471.
- Weiner, B. (2006). *Social motivation, justice, and the moral emotions: An attributional approach*. New York: Psychology Press.
- Yang, J., Sohn, A., & Cho, B. (2021). Effects of pride in K-quarantine on COVID-19 preventive behaviors. *Health and Social Science*, 58(1), 25-52.
- Yeo, S., & Cha, H. (2021). The effects of positive foreign media framing on homeland reputation and foreign policy support intention: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 of public's perception (recognition of national role identity and collective self-esteem). *The Korean Journal of Advertising*, 32(3), 177-215,
- Zhao, X., Strasser, A., Cappella, J. N., Lerman, C., & Fishbein, M. (2011). A measure of perceived argument strength: Reliability and validity. *Communication Methods & Measures*, 5(1), 48-75.

최초 투고일 2022년 04월 03일
 게재 확정일 2022년 06월 01일
 논문 수정일 2022년 06월 12일

부록 I

- 고대훈 (2020, 4, 3). 서양 우월주의의 종언?. <중앙일보>. Retrieved 2/1/21 from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746270#home>
- 김서용 (2021). COVID-19 위기상황과 정부신뢰-신뢰대상 차이와 집계 여부에 따른 정부신뢰 결정 구조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30권 4호, 33-65.
- 김수진·차희원 (2016). 비만의 책임귀인 메시지와 감정이 정책지지와 건강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귀인이론과 계획된 행동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60권 2호, 369-398.
- 대한감염학회 (2022, 2, 2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지역사회 확산 대비 대응: 범학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책위원회 대정부 국민 권고안>.
- 박경희 (2013). 정부의 공공서비스 위기대응에 대한 국민의 평가: 위기 커뮤니케이션 전략과 감성적 소구, 쟁점 관여도, 정부 책임성이 국민의 커뮤니케이션 수용과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 <홍보학연구>, 17권 3호, 414-468.
- 신선미 (2021, 1, 13) [코로나 1년] 위기에 빛난 K방역, 3차 대유행에 흔들...성공적 마무리 어떻게. <연합뉴스>. Retrieved 2/1/21 from <https://www.yna.co.kr/view/AKR20210112073600530?input=1195m>
- 양준용·손애리·조병희 (2021). K-방역 자부심이 코로나19 예방행위에 미치는 영향. <보건과 사회과학>, 58권 1호, 25-52.
- 여선하·차희원 (2021). 해외언론의 긍정적인 보도프레임이 자국명성 및 외교정책 지지의도에 미치는 영향: 공중 인식(국민 자존감 및 국가 역할정체성)의 매개효과 중심. <광고학연구>, 32권 3호, 177-215.
- 장현은 (2022, 3, 15). 국민 절반 “정부 방역조치 신뢰 못해...코로나 1-2년 더 갈 것”. <한겨레>. Retrieved 3/17/22 from <https://www.hani.co.kr/arti/society/health/1034877.html>
- 정선호·서동기 (2016). 회귀분석을 이용한 매개된 조절효과와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방법.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5권 1호, 257-282.
- 최종혁·소지연 (2021). 코로나 19 뉴스 프레임이 개인에 대한 처벌 정책 지지에 미치는 영향: 책임 인식과 분노의 매개효과. <한국언론학보>, 65권 4호, 70-105.
- 최호철·권용수·김미선 (2019). 재난대응역량과 재난관리성과의 관계성에 범·제도 체계성이 미치는 조절효과 연구.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3권 2호, 25-48.
- 표시영·정지영 (2021). 감염병과 혐오의 팬데믹 속 언론의 자화상: 코로나 19 감염병 전파에 대한 언

론보도에서 나타나는 ‘혐오 조장 표현’이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언론학보>, 65권 2호, 286-329.

한국언론진흥재단 (2020). <코로나19 이후 국민의 일상변화>. Retrieved 3/17/22 from <https://www.kpf.or.kr/synap/skin/doc.html?fn=1616717455105.pdf&rs=/synap/result/research/>

홍주현·차희원 (2018). 정부의 위기 커뮤니케이션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8권 4호, 575-585.

Hayes, A. (2013).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New York: Guilford. 이형권 (역) (2015). Process macro를 이용한 매개분석, 조절분석 및 조절된 매개분석. 신영사.

부록II 실험 자극물

자국 고양 국민 × 타국 비판 국민	자국 고양 국민 × 타국 비판 정부
<p style="text-align: center;">코로나19 발발 1년...위기대응과 결과는</p> <p>지난해 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 첫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이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후 1년 간 국내에서 약 7만 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미국(2천300여만명), 인도(1천40만여명), 브라질(810만명), 러시아(340만여명), 영국(310만여명), 일본(28만여명), 중국(8만7천여명) 등과 비교하면 국내 확진자 수는 적다. 특히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7개국 중 36위로, 한국은 확진자가 적게 발생한 그룹에 포함된다.</p> <p>이렇게 한국이 코로나19 대응에 효과적일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마스크 쓰기, 사회적 거리두기 등과 같은 개인 방역 지침을 철저히 잘 지켰기 때문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 국민들은 개인 방역 지침은 물론, 손해를 감수하며 5인 이상 집합금지,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금지 등 정부 정책을 잘 따르고 있다며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각자의 역할을 해준 '숨은 국민 영웅'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p> <p>이에 반해, 2021년 1월부터 서구 국가들에서는 코로나19가 확산일로에 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한 이유는 미국, 유럽 등 서구 국가의 국민들이 마스크 쓰기, 사회적 거리두기 등과 같은 개인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국과 유럽의 재난관리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민들이 크리스마스와 새해 연휴 등을 맞아 다른 지역으로 너무 많은 이동을 했으며 공공밀집장소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고 적절한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서구 국민들의 이러한 행동은 개인의 사생활 보장, 자유, 그리고 권리를 중요시하는 개인주의 가치관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공동체의 안녕보다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우선시하는 서구 국민들의 인식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는 장애물로 작동하는 것으로 평가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코로나19 발발 1년...위기대응과 결과는</p> <p>지난해 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 첫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이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후 1년 간 국내에서 약 7만 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미국(2천300여만명), 인도(1천40만여명), 브라질(810만명), 러시아(340만여명), 영국(310만여명), 일본(28만여명), 중국(8만7천여명) 등과 비교하면 국내 확진자 수는 적다. 특히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7개국 중 36위로, 한국은 확진자가 적게 발생한 그룹에 포함된다.</p> <p>이렇게 한국이 코로나19 대응에 효과적일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마스크 쓰기, 사회적 거리두기 등과 같은 개인 방역 지침을 철저히 잘 지켰기 때문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 국민들은 개인 방역 지침은 물론, 손해를 감수하며 5인 이상 집합금지,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금지 등 정부 정책을 잘 따르고 있다며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각자의 역할을 해준 '숨은 국민 영웅'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p> <p>이에 반해, 2021년 1월부터 서구 국가에서는 코로나19가 확산일로에 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한 이유는 미국, 유럽 등 정부 당국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사회적 거리두기 등과 같은 방역 정책들을 철저히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국 유럽의 재난관리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뒤통겨야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동 제한령을 실시하는 등 정부 당국이 제대로 위기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들 정부 당국이 검사-추적-치료로 이어지는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서구 국가 정부들의 이러한 조치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존중하는 수평적 리더십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다보니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정책일지라도 정부가 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p>

자국 고양 정부 × 타국 비판 국민	자국 고양 정부 × 타국 비판 정부
<p data-bbox="279 236 583 258">코로나19 발발 1년...위기대응과 결과는</p> <p data-bbox="206 288 657 733"> 지난해 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 첫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후 1년 간 국내에서 약 7만 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미국(2천 300여만명), 인도(1천40만여명), 브라질(810만명), 러시아(340만여명), 영국(310만여명), 일본(28만여명), 중국(8만 7천여명) 등과 비교하면 국내 확진자 수는 적다. 특히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7개국 중 36위로, 한국은 확진자가 적게 발생한 그룹에 포함된다. 이렇게 한국이 코로나19 대응에 효과적일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나라 정부가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사회적 거리두기, 5인 이상 집합금지 등의 정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잘 시행했기 때문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검사-추적-치료를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K방역 덕분에 우리는 일상을 유지하면서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다며 이것은 사스(SARS) 때 뛰어난 정부의 선진 방역 시스템에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더해져서 만들어진 값진 성과로, 정부의 시스템을 믿고 조금만 더 힘을 내 달라고 설명했다. </p> <p data-bbox="206 737 657 1076"> 이에 반해, 2021년 1월부터 서구 국가들에서는 코로나19가 확산일로에 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한 이유는 미국, 유럽 등 서구 국가의 국민들이 마스크 쓰기, 사회적 거리두기 등과 같은 개인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국과 유럽의 재난관리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민들이 크리스마스와 새해 연휴 등을 맞아 다른 지역으로 너무 많은 이동을 했으며 공공밀집장소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고 적절한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서구 국민들의 이러한 행동은 개인의 사생활 보장, 자유, 그리고 권리를 중요시하는 개인주의 가치관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공동체의 안녕보다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우선시하는 서구 국민들의 인식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는 장애물로 작용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p>	<p data-bbox="753 236 1057 258">코로나19 발발 1년...위기대응과 결과는</p> <p data-bbox="682 288 1132 733"> 지난해 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 첫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후 1년 간 국내에서 약 7만 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미국(2천 300여만명), 인도(1천40만여명), 브라질(810만명), 러시아(340만여명), 영국(310만여명), 일본(28만여명), 중국(8만 7천여명) 등과 비교하면 국내 확진자 수는 적다. 특히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7개국 중 36위로, 한국은 확진자가 적게 발생한 그룹에 포함된다. 이렇게 한국이 코로나19 대응에 효과적일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나라 정부가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사회적 거리두기, 5인 이상 집합금지 등의 정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잘 시행했기 때문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검사-추적-치료를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K방역 덕분에 우리는 일상을 유지하면서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다며 이것은 사스(SARS) 때 뛰어난 정부의 선진 방역 시스템에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더해져서 만들어진 값진 성과로, 정부의 시스템을 믿고 조금만 더 힘을 내 달라고 설명했다. </p> <p data-bbox="682 737 1132 1103"> 이에 반해, 2021년 1월부터 서구 국가에서는 코로나19가 확산일로에 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한 이유는 미국, 유럽 등 정부 당국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사회적 거리두기 등과 같은 방역 정책들을 철저히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국과 유럽의 재난관리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뒤늦게야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동 제한령을 실시하는 등 정부 당국이 제대로 위기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들 정부 당국이 검사-추적-치료를 이어지는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서구 국가들의 이러한 초치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존중하는 수평적 리더십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다보니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정책일자리도 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p>

코로나19 뉴스의 국내외 위기대응 책임 프레임이
타국민에 대한 처벌 정책 지지에 미치는 영향
집단 나르시시즘의 매개효과 중심

임인재

(성균관대학교 글로벌융복합콘텐츠연구소 선임연구원)

심민선

(인하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이철주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본 연구는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이 국가별로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코로나19 뉴스의 국내외 위기대응 책임 프레임이 사람들의 태도 및 정책 지지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였다. 구체적으로 자국(한국)의 위기대응 책임 프레임 2(자국 고양 국민 vs. 자국 고양 정부), 타국의 위기대응 책임 프레임 2(타국 비판 국민 vs. 타국 비판 정부)로 구분해 이 기사들이 집단 나르시시즘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했으며, 이와 함께 코로나19 대응 기사가 처벌 정책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집단 나르시시즘이 매개효과를 보이는지 탐구하였다.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실험설계를 구성하였다. 실험 참여자(N=400)를 네 개 집단으로 나누었으며, 참여자들은 '자국 고양 국민 프레임 × 타국 비판 국민 프레임', '자국 고양 국민 프레임 × 타국 비판 정부 프레임', '자국 고양 정부 프레임 × 타국 비판 국민 프레임', '자국 고양 정부 프레임 × 타국 비판 정부 프레임' 등 조건별 실험 자극물을 본 후 주요 변인에 응답했다. 분석결과, 집단 나르시시즘에 대해 자국의 위기대응 책임 프레임과 타국의 위기대응 책임 프레임의 주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이들 프레임 간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미하였다. 구체적으로 타국 비판 국민 조건에서 자국 고양 정부 프레임의 집단 나르시시즘 평균이 자국 고양 국민 프레임의 평균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그리고 코로나19 국내외 위기대응 책임 프레임이 처벌 정책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검증한 결과, 책임 프레임은 처벌 정책 지지에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코로나19 책임 프레임은 집단 나르시시즘을 매개로 처벌 정책 지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타국 비판 국민 조건에서 자국 고양 정부 프레임은 집단 나르시시즘을 유의미하게 증가시켰으며, 이 과정을 통해 유발된 집단 나르시시즘은 타국민에 대한 처벌 정책 지지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코로나19 대응 관련 뉴스에 대한 실무적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핵심어 : 코로나19, 국내외 대응 기사, 위기대응 주체, 책임 프레임, 집단 나르시시즘, 처벌 정책 지지